

連載：

韓國建築의 絶對特殊性에 関한 考察〔I〕

朴彦坤 — 弘益大學校工科大学建築學科 副教授

A STUDY OF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N ARCHITECTURE

Park, Eon Kon — Hong Ik University Prof.

I. 外部空間 — 마당

1. 머리말

現代建築과 都市에서 심각하게 두각되고 있는 문제점이 오픈 스페이스의 구성이다. 건물과 인간, 도시와 인구, 유통과 사회조직 등의 상태가 유기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그 활동의 体系性を 필요로 함과 동시에 건축과 도시에서는, 건축물자체 이상으로 外部空間의 중요성이 실감을 주는 것이 현 사회의 실정이다.

우리의 생활 속에 전통적으로 존재 하였던 <마당>은, 동양화에서 그려지는 소재와 함께 그려지지 않는 餘白이 가지는 중요성만큼 그 意義를 지니고 있다.

所有權意識·個人性保護 등으로 우리의 주택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울타리를 만들어 싸리문·대문·솟을대문 등이 만들어 지면서, 건물과 함께 오픈 스페이스인 마당을 적절히 구성해 왔던 것이다. 차츰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고유의 마당개념을 고수할 수 있는 여유가 사라져가고 있는데, 역으로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近年에는 造景學이 건축과 도시에서 커다란 學問性을 띠고 주목을 끌게 된 것도, 바로 외부공간의 환경조성으로서 그 활용도가 생활과 인간, 그리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기본바탕이라는 인식에서일 것이다. 여기에서

는 우리나라의 특이한 傳統的空間이 되는 마당을 고찰하면서 우리의 오픈 스페이스에 대해 새삼 알아보고자 한다.

2. 機能과 種類

건축물에 의해서 형성되는 마당과 儀式이나 특수 기능을 위해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마당 등, 2개의 형성과정 이 있겠다. 마당을 건축에서부터 고찰하면, 외부공간으로서 건물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며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건물을 보호하는 등, 마당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초가삼간에서 부터 궁전·사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필수적으로 마당공간이 만들어져, 건물과 함께 서로 공존하면서 상호기능이 효과적으로 이용되어져 왔다. 마당공간을 생활과 건축을 중심으로 하여 구분해 보면

- ① 통로를 위한 마당
- ② 채광이나 통풍을 위한 마당
- ③ 작업·생산을 위한 마당
- ④ 공간을 구분하기 위한 마당
- ⑤ 정서를 조성하기 위한 마당
- ⑥ 의식을 위한 마당
- ⑦ 行政·公務를 위한 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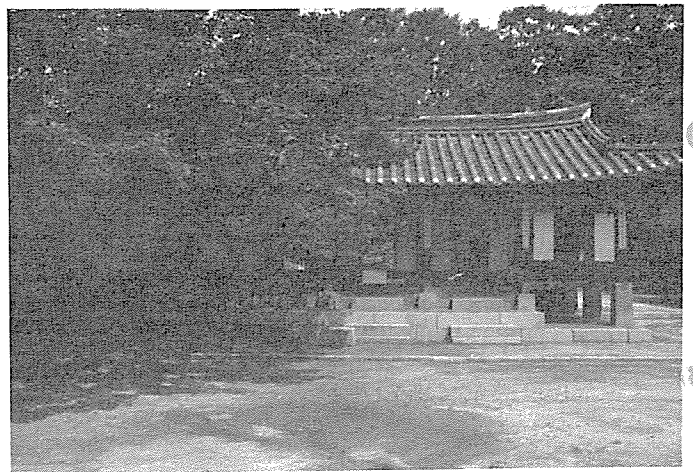
등으로 구별할 수 있겠다. 편의상 우리나라의 주거를 중심으로 한 마당을 보자. 마을의 外部空間要素는 背山臨

川으로 자리잡은 산과 강, 그리고 논과 밭이 기본이 되며, 마을 내에서는 마을마당·마을우물공간·마을작업공간 등이 2차적인 외부공간이 되고 3차적으로는 주거 단위 내의 마당공간이 구성된다. 民家の 외부공간인 마당 구성을 바깥마당·행랑마당·사랑마당·중간마당·안마당·뒷마당 등, 건물의 채(樓)나 기준이 되는 대상물, 기능의 명칭을 마당명으로 칭하고 있다.

궁전에서 行政儀式을 위한 마당이 구성되고 사찰에서는 종교의식을 위해 마당이 형성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공간 배치는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보다는 건물에 따른 외부공간 면적이 월등하게 많다. 이같은 외부공간이 우리나라 특유의 마당으로 형성됨은 민족성에 그 원인이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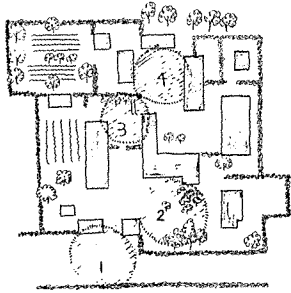
3. 朝鮮朝의 住宅마당

우리나라와 같이 건물의 외부공간으로서 마당을 가지는 예는 그리 찾아보기 쉽지 않다. 마당을 싸고 있는 담장에 장식이 있고, 물이 빠지도록 배수구와 물받이, 그리고 디딤돌과 멧그루의 식수와 화초가 있으면 정원으로 불리우기 쉽다. 우리나라의 마당이란 정원과는 또 다른 물리적 특징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평평하고 단단하게 구



민가의 마당(안동)

창덕궁내 연경당 사랑마당



1. 바깥마당
2. 사랑마당
3. 중 마당
4. 안 마당



그림 1 함양군 지곡면 정 병호씨댁의 마당공간

획된 마당은 상류신분의 주택 내에서, 정원이 아닌 빈 공간으로서 멍멍하게 존재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조선시대의 신분계급에서 유교사상이 철저했던 兩班家에서는, 양반의 신분으로 호미나 삼을 들고 흙을 만지는 직접적인 작업을 기피하여 글을 읽는 학문을 본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특히 사랑마당은 권위의식에서 평면적 공간을 강조했다.

둘째, 유교와 도학사상은 풍수지리를 추종하여 자연환경에 순응해야 하며 地勢를 人工化함을 금물로 여겨온 것이다. 주어진 환경에 동화함을 원칙으로 하여 하늘과 땅의 可視權을 내부에서 즐겼으며, 좁은 마당을 가공하여 세부적인 정원화를 하지 않았다.

셋째, 담장·배수로·기단·계단·굴뚝 등, 농촌민가의 마당구성과는 다른 기법으로 시설되어 있으나, 직선적이고 정연한 멋이 바로 사대부의 생활신조의 반영이라 하겠다.

네째, 농경을 생활로 하는 농촌의 민가에서는 작업마당이 필요한데 반해, 대가족단위로 구성된 가부장제하의 양반주택에서는 관혼상제의 儀式空間으로 보다 넓은 마당을 필요로 했다.

다섯째, 조선의 후기에 도시양반주택공간이 철저하게 구분되는 행랑채·

사랑채·안채·별채 등을, 마당으로서 각 공간을 차단시키는 형태로도 이용되었다. 각 공간의 독립성은 곧 안전성이며, 이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고안됨은 당시의 사회 정세와 관련이 있겠다.

여섯째, 상류신분의 주택도 결국 농경의 작업이 행해짐으로 인해 거추장스러운 장식보다는 편편하고 단순한 마당을 필요로 했다.

이같은 조건으로 형성된 마당은 정원만이 아닌, 정원을 포함한 마당이라 하겠다. 민가 작업마당의 현실성보다는 정신적 의미를 강조한 오픈스페이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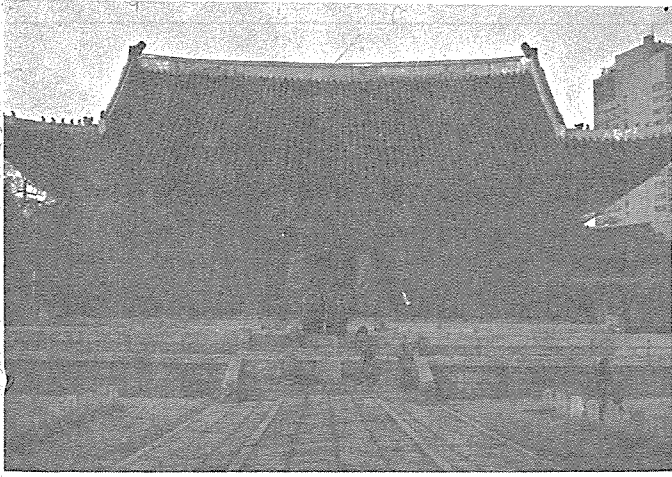
경북 함양군 지곡면 정 병호씨댁(그림1)은 집 밖의 바깥마당을 통해서 대문간으로 들어서면 사랑채를 마주보게 되고 사랑마당에 서게 된다. 사랑마당은 사랑채와 담장으로 둘러싸여 농가다운 작업마당을 만들고 있으나 상당히 정원화된 마당이다. 중문을 통해 진입하면 조그만 중문마당이 형성되어 안채와의 이중적인 차단 공간 기능을 만들어준 안식구들의 보호 또는 폐쇄성의 기능을 담당하는 셈이 된다.

계속 방향을 바꾸어 진행하면 안채에 의해 형성된 안마당에 들게 된다. 안채의 채광과 통풍을 돕는 안마당은

住居活動 환경을 쾌적하게 해주고 있다. 이들 마당은 각 공간을 철저하게 구분해 주면서, 상대하고 있는 건물에 적응하도록 마당이 계획되어 겹겹 건물 이상으로 외부공간인 마당의 배려도를 충분히 이해시켜주고 있는 주택이다. 대개 정씨택보다 규모가 작은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농가에서는 통로와 작업, 그리고 위생환경을 중심으로 안채·사랑채·부속건물이 안마당을 구성해 준다. 농가에서의 마당은 다목적 외부공간으로서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은, 정원이 될 수 없는 생산수단의 공간이자 여유가 만끽한 비경제성 공간으로도 해석되는 점 등이 바로 우리 민족적인 마당의 특징이라 하겠다.

4. 儀式마당

궁전의 正殿은 왕을 중심으로 하는 상·하계급이 절대적으로 표현되고 위엄과 권위성이 농후한 의식공간이다. 개개인의 계급차에 의해 서로간의 거리간격이 주어지고 王과 臣의 엄격한 분리로 장엄한 마당을 만든다. 중국에서도 같은 구성을 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장군 또는 영주소유에는 외부공간형성의 여유가 없이 건축됨이 보통이며, 宮(천황 또는 장군)에서의 외부공간은 초목과 물·돌 등으로서 정



경복궁 중화전 마당



화엄사 탑마당

원을 중점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와 같은 평평하고 눈에 띄는 수직성의 가공이 없는 마당을 일본인은 두지 않았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마당의 엄격한 계획성과 장엄한 분위기를 宗廟正殿에서 느낄 수 있다. (그림 2).

이 건물은 朝鮮歷代의 왕과 왕비의 神位를 봉안한 의식에 맞추어 계획한 건물이다. 正殿正面 25間, 측면 4間은 일반건물보다 방향이 길고 측면이 정면에 비해 얇다. 25간과 南端에 月廊을 합친 길이를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진 마당은 의식규모 및 사용빈도에서, 그리고 계획에 앞서 宮殿의 正殿과 왕과 왕비를 의식했을 것이다. 화려성을 피한 건물양식, 그리고 회랑 대신 담으로 둘러치고 마당바닥은 돌을 깔아 엄숙함이 감돈다.

정원이라는 자연가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지반조성으로의 높낮음과 넓다란 장방형 돌의 자연스러운 배열, 직선적인 전체계획만이 마당의 전부이다. 민가의 마당에서 상류주택의 마당, 궁전의 마당, 종묘의 마당 등, 이것들이 모두 한국의 특수한 外部空間이 되겠다.

儀式에서 형성되는 공간은 어느 나라나 종교에서 찾아낼 수 있다. 종교의식이 결국 建物構成을 결정지었으며 고대로부터 儀式建築이 전반 건축양식의 길잡이를 해왔다고 본다. 동양의 漢文化圈에서는 불교가 들어와 새로운 건축분야를 만들었으나 기존의 木造建築에 중국의 왕궁이 중심이 된 건축양식을 불교에 응용, 적용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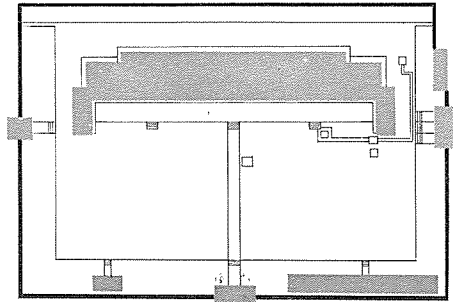


그림 2. 宗廟正殿과 外部공간

같은 불교와 같은 건축양식이건만 外部空間構成方法이 같아질 수는 없다. 현존하는 불교의식과 신도와 사찰과의 위치 중(僧)의 위치 등이 결국 서로 다른 외부공간을 연출시키게 한 것이다. 佛像, 즉 堂內空間에서 진행되는 의식에 못지않게 그대의 伽藍에서는 舍利가 봉안된 탑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때, 불상의 출현 이전에는 상당한 의식이 외부공간 즉, 마당에서 이루어졌으리라고 보며, 우리나라의 古刹들은 바로 이 塔마당의 발전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도 고대 초기불교에서는 거대한 木塔이 있었으나 石塔으로 변화되어 본래 塔內部空間이 없어지게 되었다.

인도의 STUPA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伽藍이라면 불교의식의 상당수가 외부공간에서 행해졌을 것으로 간주된다. 석탑의 문화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마당의 이용도가 많았던 것이다.

신라시대 興輪寺에서 행해졌던 福會라는 의식을 살펴보면 本尊의 우측으로부터 좌측으로 돌며 마당으로 나가 佛塔을 중심으로 같은 방법으로 도는데, 이때 승려와 신도의 배치는 주지승이 제일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승려, 신도들이 차례로 서게되며 아무리 인원수가 많아도 모두

따라 돌게 되어 있다. 현재는 本尊의 주위를 도는 의식이 차츰 사라지고 불당 앞 塔마당에서의 탑돌이는 행해지고 있다.

그 외에도 직접 또는 간접의 종교성 의식이 사찰의 마당에서 이루어져 오고 있음은, 본연의 종교의식을 위해 마당의 구성을 필요로 했던 종교적 공통성이라 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에서는 石塔文化和 함께 사찰의 마당이 더욱 발전되었던 것이다.

5, 맺음말

現代社會에서 우리의 마당의 가치는 인정이 되고 있으나 그 응용이 어려워진 실정이다. 풍수지리나 도참설에 의해 택지와 向을 잡음에 따라 자연히 마당은 좋은 환경을 가지고 되면서 우리의 마당은 다른 나라와 같이 자연을 옮겨 놓은 듯한 정원화를 하지 않았다.

명승고적이 되는 사찰의 마당이 스님의 취미에 의해 잔디와 꽃·나무가 심어지고, 보도를 만들어 돌을 깔아 놓고 즐기는 塔마당에서 우리는 그들의 지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현상은 꼭 사찰마당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연을 동경하는 마음의 영향이 住居內는 물론 곳곳에 정원화를 피하여 마당의 순수한 개념을 상실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비일비재하다. 현대의 조경학이란 정원화라기보다 마당화된 外部空間性이 크게 부각되어야 우리의 전통성을 계승받고 고수하는 건축 분야가 될 것이다.